***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30일 토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8호

호전분자들의 북침전쟁책동

합동군사연습에 연이은 새로운 북침훈련

이미 보도된 것처럼 한국합동참모본부는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 여주와 이천, 남한강일대에서 군단급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힌데 이어 육군 2개 군단을 비롯한 공군과 국군 항공작전사령부 소대들이 참가한 가운데 28일부터 도하훈련을 포함한 각종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호전분자들의 극악한 반민족반통일적인 정체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용납못할 북침훈련책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땅은 한미호전분자들이 지난 21일부터 벌여놓았던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인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군사훈련의 포연서린 연기도 채 가셔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호전분자들이 한미합동전쟁연습이 끝나기 바쁘게 연이어 북침전쟁연습을 벌여놓으면서 전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니 이야말로 전쟁열에 환장한 전쟁광신자들의 히스테리적 망동이라 하겠습니다.

훈련규모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또 지역적으로 보나 이번 군사훈련이 북침을 겨냥한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북침은 곧 전쟁이며 전쟁은 민족공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국민과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한 남북간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으로 조국의 자주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그토록 열망하고 있는 때에 이 땅의 호전분자들이 그에 역행하면서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책동에 편승하다 못해 또다시 전쟁연습소동을 벌여놓은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당국자들의 이같은 책동은 오늘에 와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야합한 북침전쟁책동으로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분위기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해 오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규모적인 한미합동전쟁연습이후 연이어 벌이고 있는 군당국자들의 북침전쟁연습 역시 그 일환인 것입니다.

이같은 사실만으로도 민족의 운명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미국에 빌붙어 전쟁책동에만 환장이 된 군당국자들의 극악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체를 더욱 드러내 보인다 하겠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우리 민족을 공멸의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군당국자들의 북침전쟁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이 땅의 호전분자들의 북침전쟁책동이 초래할 엄중한 악결과에 대해 똑바로 가려보고 일치단결로써 이를 저지파탄시켜야 할겁니다.

군당국은 대세의 흐름과 국민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온 겨레의 더 큰 저주와 규탄을 받기 전에 반민족적인 북침전쟁책동을 당장 그만두어야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8일

김정일총비서, 메가와티대통령 접견

김정일총비서는 29일 방북중인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인도네시아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김정일총비서는 이날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을 열렬히 환영했으며, 두 정상은 따뜻한 분위기에서 환담한 뒤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중앙방송은 전했다.

메가와티대통령은 **김정일**총비서께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정일**총비서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중앙방송은 밝혔다.

한편 메가와티 대통령은 이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둘러봤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2/03/29

≪한민전≫평양대표부 대표 기자회견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발표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중앙위원회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민≫에게 반미반부쉬결사항전에 결연히 떨쳐 나설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28일 평양에서 진행된 국내외기자회견에서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가 이 서한을 소개하였다. 서한은 부쉬의 ≪악의 축≫악담과 서울행각을 계기로 폭발된 우리 민중의 반미진출이 미제의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핵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 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불구름이 밀려 들고 있다고 하면서 서한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북에 대한 군사적위협공갈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북에 대한 핵공격은 곧 한반도를 핵참화속에 몰아 넣는 민족전멸책동이다. 우리 국민은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미국의 침략전쟁도발흉계를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민족의 안녕과 한국의 자주화를 위해서는 이 땅에 도사리고 있는 주한미군과 핵기지부터 추방하고 미국의 무기강매책동과 살인흉기반입을 저지분쇄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미국과의 전쟁공조를 짓부시고 동족과의 평화공조, 통일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반미반부쉬투쟁은 곧 6. 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대선에서 친미주구 리회창을 락선시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해 버려야 한다. 반미투쟁에서의 승리는 민족민주운동의 단결에 있다.

서한은 미제의 전쟁연습책동과 영구강점책동, 6. 15공동선언리행방해행위를 저지분쇄하며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 나갈것을 각종 반미투쟁단체들에 호소하였다.

이어 최근 남조선에서 거세차게 벌어 지고 있는 인민들의 반미반부쉬투쟁의 일부를 보여 주는 록화물이 방영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2002/03/28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

4 세기와더불어
• 5장 1절 수난당한 대지 (2)

6 칭송
•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 장군님존함송시
• 대형동판부식화 ≪백두산밀영≫

7 구국의 소리
• 한미공조 배격하고 민족공조 이룩하자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8일
• 6.15공동선언관철투쟁을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벌이자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28일 보도

11 평양방송
• 민족자주정치로 조국통일운동을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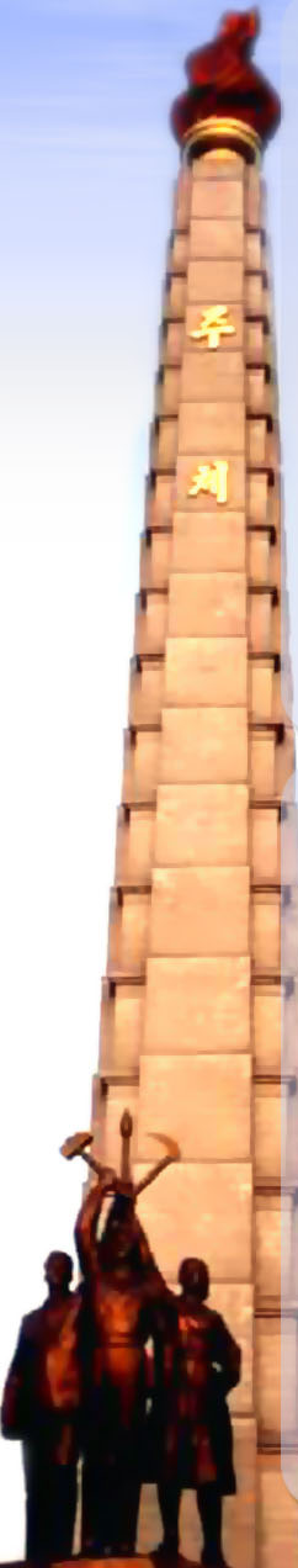
12 아리랑뉴스
• 민노당 ≪고철 F15K 대신 사회복지예산 늘려야≫
• F-X 둘러싼 또다른 전투장
• 교육학생연대 총궐기, 대정부투쟁 선포
• 서울대 총학생회, 29일 새벽 총장실 점거
• 조선대, 1.8극장 뒤흔든 ≪교육재정 확충≫외침
• 경북대, 11년만에 ≪학생총회≫ 성공적 개최

15 운동강좌
•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전략전술 (2)

16 조국통일3대현장
•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1)

주체사상에 대하여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2.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위주의 철학적 원리 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밝히시였습니다.

사람도 물론 물질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입니다. 사람은 자연계에서 벗어 나올 때 벌써 특출한 존재로 등장하였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다른 물질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여 자기에게 복무하게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는 것을 밝히심으로써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명을 주시였습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입니다.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것은 오직 사람 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며 자기의 목적을 실현해 나갑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오직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집니다.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존재,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창조성은 목적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은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더욱더 쓸모있고 이로운 것으로 개변시켜 나갑니다.

창조성은 자주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룹니다.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됩니다.

사람은 의식성을 가진 존재,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의식성에 의하여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됩니다.

결국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곧 세계에서 유일한 지배자이며 유일한 개조자입니다,

사람은 물론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세계 가운데서 살며 활동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노동대상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 원천이며 사회는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은 사람들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환경이 좋은가 나쁜가, 특히 사회의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진보적인가 반동적인가 하는데 따라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에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제약되고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그저 순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그에 맞게 개변하며 낡고 반동적인 것은 새롭고 진보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해 나갑니다. 이것이 세계를 더욱더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계로 개조하고 변혁해 나가는 사람의 활동이며 투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습니다.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의 운동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밝혔습니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를 대하는 입장과 관점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은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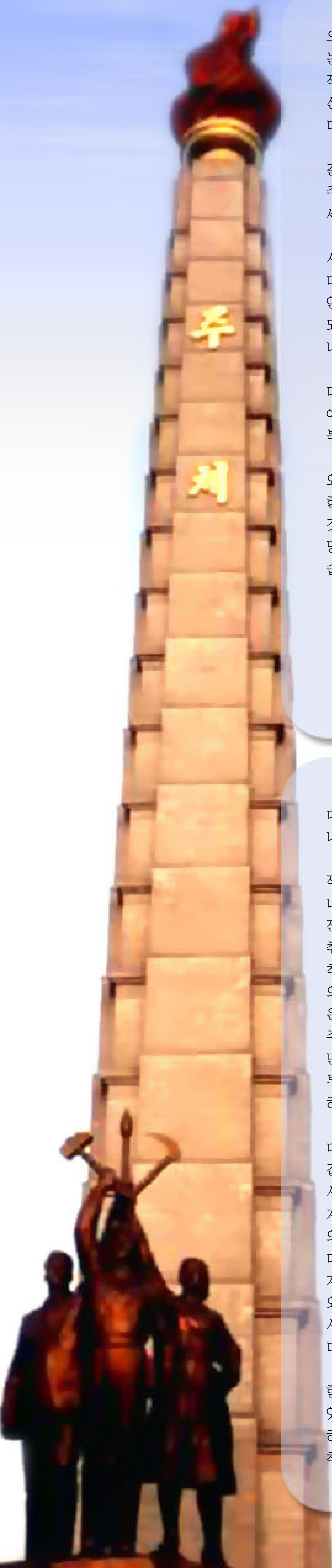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 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이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며 세계에는 사람의 이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오직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올바른 관점과 입장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사람만이 세계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개조를 요구하며 세계의 개조를 실현하는 것도 다름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은 객관적 법칙을 이용하여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조하여 나갑니다. 세계는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서만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은 관점과 입장으로 됩니다.

세계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은 사람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으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적인 관점과 입장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주체의 세계관은 우리시대의 가장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역사가 전진함에 따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강화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람들의 의사에 지배되는 세계의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은 세계의 참다운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계는 더욱 더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전변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3.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원리

주체사상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역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가 새롭게 천명되었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역사원리는 새로운 사회역사관, 주체사관입니다.

1)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이다

역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서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역사는 발전합니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은 곧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역사적 운동은 자연의 운동과 구별되는 자체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가집니다. 물론 사회적 운동도 물질적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집니다. 사회적 운동에도 물질세계의 일반적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 운동에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합니다.

사회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적 운동 그 자체가 있을 구 없으며 역사의 발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곧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입니다. 인민대중은 자기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합니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 것도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은 수행하는 것도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손으로 사회의 모든 재부를 만들어내며 자기의 투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역사를 발전시킵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떠나서는 사회의 변혁과 진보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류역사를 놓고 보면 매 세대들이 창조하고 변혁한 세계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연과 사회의 개조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위는 강화되고 그들의 힘은 장성하며 또 인민대중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들의 힘이 커질수록 사회역사발전에서 인민대중의 주동적 작용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역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며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역사를 개척하고 발전시키지만 착취계급은 역사의 전진을 멈춰 세우고 되돌려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착취계급은 결국 역사의 반동으로, 혁명의 대상으로 됩니다. 계급사회의 전노정은 역사의 창조자와 역사의 반동, 혁명의 주인과 혁명의 대상, 다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과 반동적 착취계급 사이의 첨예한 투쟁의 역사입니다. 사회는 이 투쟁을 통하여 전진하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오랫동안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와 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착취와 압박을 받아 왔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착취사회에서도 근로인민대중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물질적, 문화적 부를 창조하였으나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한 탓으로 역사를 자주적으로 개척할 수 없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만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처지와 운명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영도와 투쟁의 결과입니다.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은 온 사회를 노동계급화하는 과정입니다. 노동계급의 영도 밑에 온 사회가 선진적인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완전히 개조될 때 역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지위는 비상히 강화될 것이며 역사의 전진과 혁명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인민대중의 역할은 비할 바 없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창조자이지만 옳은 지도에 의하여서만 사회발전역사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특히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공산주의운동은 그 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것만큼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적으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영도문제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노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 영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올바른 영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여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으며 그를 옳게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시대 역사발전의 중심에는 노동계급은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확고히 서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계급적, 민족적 억압과 착취 밑에서 시달려 온 수억만 인민들이 자주와 독립과 사회적 진보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인류의 운명과 세계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서 더욱더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대의 이 장엄한 전진운동에 의하여 수세기를 내려오며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으로 살찌고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여 온 자본주의, 제국주의는 오늘 걷잡을 수 없이 파산몰락되고 있으며 역사의 무덤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2권 제4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1. 수난당한 대지 (2)

회의가 끝난 다음 간도 전지역과 국내로 공작원들이 련이어 떠나갔다.

나는 명월구에서 얼마동안 이 일대의 당조직과 대중단체들에 대한 사업을 지도하다가 안도로 향하였다. 안도를 활동거점으로 삼고 당분간 간도와 국내의 혁명사업을 추켜세우자는 것이였다.

안도는 철도와 대도로, 도시들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여서 일제의 영향이 덜 미치고 주변이 온통 험한 산악과 밀림으로 에워싸여있어 연길, 화룡, 훈춘지구와 무송, 돈화, 화전 지구는 물론 륙읍일대를 비롯한 국내의 조직들과도 련계를 가지기 유리하였고 유격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당조직 건설사업을 추진시켜나가는데서도 매우 편리한 고장이였다. 주민구성도 대단히 좋았다.

더욱이 조종의 산 백두산이 가까이에 있으므로 조국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우리로서는 그 숭엄하고도 장중한 모습에서 크나큰 정신적 위안과 고무를 받지 않을수 없었다. 화창하게 개인 날이면 멀리 서남쪽하늘가에 백두령봉의 은회색 파도가 바라보이였는데 그 은은한 원경이 시야에 안겨올 때면 무장을 들고 조국을 한시바삐 찾고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세차게 고동치군 하였다. 비록 조국을 떠나 이역에서 무장투쟁을 시작하지만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항일의 총성을 울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공통된 심정이였다.

나는 돈화강습을 끝내고 4월에 이미 안도에 가서 대중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 적이 있었다.

그 때 어머니는 신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의술이 락후한 때여서 무슨 병이라는 진단도 못받고 그저 ≪적≫이 요동치는 것 같다는 말씀만 하면서 탕약을 끓여 잡숫군 하였다.

자신의 병이 얼마나 위중한가 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푼전 한잎 없이 늘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나를 걱정하면서 부녀회사업에 있는 심혈을 다 바치었다.

두달만에 안도로 다시 찾아가는 내 심중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안도에 도착한 나는 예상보다 몹시 밝은 어머니의 얼굴빛을 보고 마음을 놓았다. 집생각을 하지말고 나라를 찾는 일에 전념하라고 노상 타이르면서도 내가 나타나면 반가움을 참지 못하고 얼굴의 병색마저 감추는 어머니였다.

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경대할머니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나를 얼싸안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그해에 만주로 온 할머니는 그동안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내 무송에서 어머니와 함께 조반석죽의 가난한 가계를 연명해왔다. 우리 일가가 무송에서 안도로 자리를 옮길 때 할머니도 어머니를 따라 안도에 왔었다. 안도에 와서는 흥륭촌에 있는 영실이네 외가에 거처를 잡고 사돈집과 우리 집에서 엇갈아가며 침식을 하였다.

영실이란 형권삼촌의 외동딸이다.

형권삼촌이 감옥에 잡혀간 다음부터 우리 숙모(채연옥)는 심한 우울증에 걸리었다. 금방 시집을 와서 첫 아이를 낳고 살만한 때에 남편이 불행하게도 감옥행을 하였으니 신경이 약해질만도 하였다.

나는 형권삼촌이 징역 15년의 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시작한 후 숙모에게 아이는 다른데 주어서 키우게하고 재가하라고 권하는 편지를 써보냈다. 숙모는 그런 편지를 받고도 재가하지 않았다. 남편이 없는 형님도 재가하지 않고 온갖 고생을 다하며 세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시집을 다시 간단 말인가, 내가 재가하면 영실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심하겠는가, 설사 영실이를 남들에게 주고 다른 남자를 만나 새 살림을 시작한들 내가 발편잠을 자며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는가고 하면서 그런 말은 두번다시 입밖에 내지 말라고 하였다. 그 숙모가 아주 친숙하고 대가 있는 분이였다.

어머니는 안도에 오신후 기분전환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같이 데리고 있던 숙모를 흥륭촌에 있던 친정집으로 보내었다.

우리 할머니가 영실이네 외가에 가 계시면서 며느리의 뒤시중도 하고 말동무도 해주었다. 그러다가도 병중에 있는 맏며느리의 생각이 나면 우리 어머니한테로 뛰어와 탕약도 끓이고 동자질도 하였다. 병약한 두 며느리를 돌보느라고 할머니가 그대 말없이 속을 많이 태웠다.

할머니가 고향으로 쉬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역에서 몇해를 보낸 것은 외로운 처지에 빠진 두 며느리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애틋하고 다심한 어머니의 사랑이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안도에 도착한 그날밤 할머니는 내곁에서 주무시였다.

깊은 밤중에 잠을 깨여보니 내 머리가 할머니의 팔에 안겨있었다. 내가 잠든 다음 할머니가 베개를 슬그머니 밀어내고 내 머리를 안고계신 것 같았다. 나는 할머니의 심정이 가슴에 미쳐와 차마 머리를 옮겨놓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쉬지 않고 있다가 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고향이랑 잊은게 아니냐?≫

≪할머니, 그럴리가 있습니까. 나는 한시도 만경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일가친척들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나는 사실 여기 식솔들을 다 데려가자구 만주에 왔댔다. 너는 못데려가도 너희 어머니랑 동생들이랑은 다 데려가자구 생각했댔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가 통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나라를 찾기 전에는 다시 압록강을 건너지 않기로 맹세하고 떠난 걸음인데 성주 아버지가 떠났다고 한번 내친 걸음을 어떻게 훌쩍 되돌려세우겠는가구 하면서 말이다. 어찌나 모질게 마음을 먹었는지 무송을 떠날 때 한번도 돌아보지 않더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자는 말을 더 붙이지 못했다. 여기서 사는게 조선독립에 더 리롭다면 나는 너희들을 더 잡아끌지 않고 혼자서 만경대로 돌아가겠다. 고향생각이 나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구싶거든 이따금씩 편지나 해다구. 그러면 너희들을 본듯이 생각하겠다. 나야 여기로 자주 다닐수 없지 않니.≫그후 나는 할머니의 이 부탁을 한번도 리행하지 못하였다.

조국의 신문들에 자주 실리는 내 이름과 항일유격대의 전과보도가 내 소식을 대신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태여 편지를 쓰지 않았다.

할머니는 네가 일을 많이 하자면 너희 어머니가 앓지 말아야겠는데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다가 일에 너무도 극성이니 야단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에 대한 걱정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가정살림을 떠메고나가야 할 맏아들로서, 만경대가문의 장손으로서 생각되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 당시 우리와 같이 혁명을 한 청년들 속에서는 싸움의 길에 나선 남아대장부하면 가정쯤 잊어야 한다는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류행하고 있었다. 가정을 생각하는 사람은 대사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이 청년혁명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나는 일찍부터 그런 경향을 비판하면서 가정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도 혁명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나자신은 자기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보살폈던가. 혁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신하는 것이야말로 가정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당시 내가 일상적으로 품고 있던 효성관이였다. 나는 혁명과 분리된 순수한 효성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가정의 운명은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기때문이였다. 나라가 편안해야 가정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나라의 비운은 곧 그것을 이루는 수백만의 가정들에도 어김없이 미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자면 나라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지키자면 각자가 자기앞에 부과된 공민적 의무를 책임적으로 리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혁명을 한다고 가정을 망각할 수는 없다. 가정에 대한 사랑은 곧 혁명가를 투쟁에로 추동하는 하나의 원동력이다. 가정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혁명가의 투쟁열도 동시에 식어진다.

나는 가정과 혁명 사이의 이런 상호관계를 원리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일신을 혁명에 바친 혁명가의 경우에 가정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일가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에 깨여나 집안팎을 돌아보니 남자의 손이 가야할 구석이 여러군데 있었다. 땔나무도 예비가 별로 없었다.

나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를 도와 틈틈이 가정일에도 손을 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은 만사를 젖혀놓고 철주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땔나무를 해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챘는지 우물터에 갔던 어머니가 또아리와 낫을 들고 우리를 따라왔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내가 일손이나 덜자구 너희들을 따라가는게 아니다. 산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구 그런다. 어제야 할머니가 장밤 너를 붙들구 말을 시키지 않았니.≫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며 밝게 웃었다.

유격대창건을 준비하던 시기 비밀아지트로 쓰던 집

그제야 나는 어머니의 심정이 리해되였다. 집에서는 사실 할머니가 나를 독차지하군 하였다. 할머니가 물러앉으면 동생들이 나를 붙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무를 하는 동안 노상 내곁에 있으면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주야, 너 최동화라는 사람을 알겠니?≫

≪알지요, 최동화야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며칠전에 우리 집에 들렸더라. 네가 언제쯤 안도로 올 것 같은가, 오면 알려달라구 하면서 너하구 한바탕 입씨름을 해보구싶다지 않겠니.≫

≪그래요? 그 사람이 왜 나하구 입씨름을 할 생각을 했답니까?≫

≪네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5.30폭동이 잘못된 폭동이라구 선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다더라. 상급에서도 다 지지하고 밀어준 폭동인데 성주와 같이 지각있는 사람이 왜 그걸 그렇게 나무라는지 모르겠다구 하면서 머리를 흔들더구나. 네가 혹시 사람들의 눈에 나는게 아니냐?≫

≪눈에 날수도 있겠지요. 내 주장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디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야 뭐 세상물정을 아니. 그저 사람들이 무리로 죽고 잡혀가지 야단이라구 생각했다. 알맹이들이 다 없어지면 혁명은 누가 한다더냐.≫나는 소박하면서도 단순명료한 어머니의 지론이 퍼그나 마음에 들었다. 인민의 눈은 언제나 정확하였다. 인민이 판단하지 못할 사회현상이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어머니가 옳게 생각했습니다. 그 최동화라는 사람보다는 어머니가 공명정대하게 문제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혁명은 폭동의 피해를 계속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를 수습해보려고 나는 이번에 안도에 왔습니다.≫

≪네가 그럼 또 지난봄처럼 바삐 뛰어다녀야겠구나. 오늘처럼 다시는 집살림에 마음을 쓰지 말고 네 할일을 직심스레 하거라.≫어머니가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날 어머니는 내앞에서 최동화의 이야기도 꺼냈을 것이다.

나는 그후부터 어머니의 념원대로 조직을 꾸리는 일에 전념하였다.

안도도 5.30폭동의 피해를 많이 입은 고장이였다. 그런데다가 이 지구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안도를 혁명화하자면 무엇보다도 이 일대에서 당조직을 확대하고 당대렬을 늘이며 당조직지도체계를 똑똑히 세워놓아야 하였다.

우리는 1931년 6월 중순 김정룡, 김일룡과 그밖의 핵심분자들로 안도현 소사하구 당위원회를 조직하고 구당위원회 앞에 이도백하, 삼도백하, 사도백하, 대전자, 푸르허, 처청즈 방향에 공작원들을 파견하여 기층당조직들을 내올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구당위원회를 내온 다음에는 류수하, 소사하, 대사하, 안도 등지에 공청조직을 확대하고 농민협회, 반제동맹, 혁명호제회, 소년탐험대와 같은 반일단체들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그해 여름 안도지방에서는 대중을 조직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완료되였다. 조직이 들어가지 않은 마을은 없었다.

안도를 혁명화하는데서 제일 큰 난관은 혁명대오가 사분오렬되여 있은 것이였다. 안도는 강을 가운데 두고 물남, 물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마을들에 청년조직들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었다. 물북의 청년조직은 정의부의 후예들이 주관하는 것이였고 물남의 청년회는 심룡준과 같은 참의부의 인물들이 관할하는 것이였다. 이 두 조직이 서로 눈을 흘기고 삿대질을 하며 지내는데다가 최동화가 지도하는 엠엘계의 청년조직까지 줄을 늘이고 있어 청년운동내부가 매우 복잡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청년조직들을 원상복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시키는 방향에서 청년들을 교양하고 인도해나갔다. 우리가 청년운동을 분렬시키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최동화와 같이 파쟁에 인에 박힌 사람도 안도지구에 통일적인 청년조직을 내와야 한다는 우리의 견해를 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정룡

안도를 혁명화하는 과정에는 적대분자들의 방해책동이 또한 매우 심했다.

카륜이나 오가자 같은데서는 촌장들이 모두 우리 영향하에 있었지만 흥룡촌에서는 촌장이 악질지주 무한장에게 붙어 렵탐군노릇을 하였다. 그자는 마을사람들의 동향과 대중단체들의 움직임을 수시로 내탐해가지고는 곧장 성시에 찾아가군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흥룡촌의 남녀로소 전부가 참가하는 성토모임을 열고 촌장을 마을에서 쫓아버리였다.

며칠후 무한장을 나를 찾아와서 이런 흥정을 들이댔다.

≪나는 김성주선생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미리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늘 구안도에 가있고 여기에는 내 보위단만 있으니 참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 철없는 것들이 김선생의 정체를 알고 해치는 날에는 나는 전체 공산주의자들의 원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처럼 그냥 지내기도 딱하단 말입니다. 일본사람들이 알면 당장 내 목부터 칠텐데. 그러니 우리 서로 좋도록 합시다. 김선생이 여기를 아주 떠나주시오. 려비가 필요하다면 내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응대했다.

≪당신이 념려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주이기는 하지만 중국사람으로서의 량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중국을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일제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반대하거나 해칠 리유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다른 중국청년들인 보위단원들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졸렬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터놓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념려하는 것보다 우선 당신자신이 일본놈의 ≪개≫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무한장은 그 말을 듣자 더 길게 이야기를 끌지 않고 흥룡촌을 떠나갔다.

그후 무한장과 그의 보위단은 대체로 중립적인 립장을 취하면서 우리를 신중하게 대하였고 새로 임명되여 온 촌장도 우리 눈치를 보아가며 꼭 필요한 행정임무만 조심스럽게 수행하였다. 만일 우리가 안도에서 대중을 조직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때에 관철하지 않았더라면 백색테로가 휩쓸고 지나간 황량한 간도대지에서 무한장과 같은 큰 지주를 굴복시킬수 없었을 것이며 그를 감히 중립화하여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지 못하였을 것이다.

조직된 대중의 힘은 참으로 무궁무진하며 그 힘앞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흥룡촌과 그 일대의 혁명조직은 활기에 넘쳐 자기의 력량을 확대해나갔다.

(끝)

흥룡촌 전경

선전화 ≪구렝이≫

일화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

1994년 11월 9일 **김정일**장군께서는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시였다.

이날 조선중앙방송이 중대보도를 예고했을 때 세계여론은 주석님서거 100여일이 지난 시점이여서 당과 국가의 령도체제와 관련한 추측이 란무했고 ≪독수리94≫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고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던 이남당국자들은 장군님께서 어떤 강력한 군사적대응조치라도 발표하시는게 아닌가 하여 바싹 긴장해 있었다.

그런데 그날 낮 12시에 발표된 최고사령관 명령은 의외에도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건설을 조선로동당창건 50돐전으로 끝낼데 관한것이였다.

세계의 군사(軍史)에는 일국의 최고사령관이 인민을 위한 건설명령을 내린적이 없다. 그것은 민중의 행복을 위하시는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구상과 유훈을 실현하기 위한 장군님의 충성의 명령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인민군대를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건설에 동원시키는 한편 주석님께서 생전에 큰 관심을 돌리신 평양-향산관광도로공사도 군대가 맡아 빨리 끝내도록 하시였다.

1995년 10월 12일 평양-향산관광도로개통식에 참석하신 장군님께서는

≪평양-향산관광도로를 개통해 놓고보니 수령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 집니다. 수령님께서 계시였더라면 오늘 완공된 평양-향산관광도로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양-향산관광도로건설을 좀더 일찌기 시작하여 빨리 끝냈더라면 수령님을 모시고 개통식을 할수 있었을것이며 수령님께서 이 도로를 리용하실수 있었을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도로를 건설해 놓고 수령님을 모시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 지는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더 말씀을 잇지 못하시는 그분의 안광에는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 생존해 계실때보다 더 지극한 충성심으로 주석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 위업을 받들어 나가시는 장군님께서 불면불휴의 정력적령도로 주석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빛나는 결실을 이루시고도 그것을 주석님의 생전에 마련해 드리지 못한것이 마치 자신의 지성이 모자라서인것처럼 가슴 아파 하시니 그분은 정녕 하늘도 감복할 충신의 최고화신이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송시

장군님존함송시

비전향장기수 김종호

쇠금자 금빛으로
찬란하게 우주를 물들이고
바름정자 옳은 정치로
새 세기를 펼치시네
날일자 해님으로 솟아올라
인류를 향도하시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칭송소리 높아라

천출명장 위인으로
그 이름 빛나시고
선군영도 위엄으로
천만 적을 이기시니
만천하를 다스리는
김정일장군님
영원히 청춘으로 계시옵기를
축원합니다.

흠모

대형동판부식화 ≪백두산밀영≫

대형동판부식화 ≪백두산밀영≫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1984년 2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필리핀 엘랑제상사대표단이 드린 선물이다.

높이 125㎝, 길이 250㎝가 되는 대형동판부식화 ≪백두산밀영≫은 아침노을이 붉게 타는 백두산밀영의 소박한 귀틀집, 만년장설을 이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 눈 덮인 천고밀림의 험준한 봉우리들을 형상하고 있다.

이 동판부식화는 보면 볼수록 숭엄한 느낌을 자아내는 뜻깊은 화폭이다.

대형동판부식화 ≪백두산밀영≫이 그처럼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는 화폭으로 완성되기까지에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다.

필리핀 엘랑제상사 성원들은 1980년대 초부터 조선금속무역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자주 우리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그들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으로부터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게 되었다.

이미 1983년 4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대형동판부식화 ≪만경대고향집≫을 선물로 올린 바 있는 엘랑제상사일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다가오는 그이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자기들의 지성 어린 선물을 올리기로 하였다.

1983년 12월 어느 날 상사책임일군은 전체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는 것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자주시대의 위대한 영도자로 높이 모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예와 행복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의 성스러운 역사가 어려있는 백두산밀영을 형상한 미술작품을 선물로 마련하여 그이께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사의 모든 일군들이 그의 의견에 일치하게 찬성해 나섰다.

그들은 세월이 가도 변치 않을 동판부식화로 백두산밀영의 아침노을을 형상하기로 하고 곧 몇 명의 실무일군들로 대표단을 무어 조선에 파견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그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도 올라가 보았고 그 일대의 혁명전적지들과 밀영의 귀틀집도 참관하였다.

그들은 시종 흥분된 마음으로 백두산밀영의 아침노을을 형상하기 위하여 여러 날 그곳에 묵으면서 귀틀집의 사적물들과 밀영을 포근히 안고 솟아있는 산봉우리들, 항일대전의 역사의 자취가 어린 천고의 밀림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속사하였으며 백두산밀영을 형상한 미술작품들을 얻어 가지고 돌아갔다.

그때로부터 한달 동안 그들은 있는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백두산밀영의 아침노을을 그림으로 형상하고 그것을 동판부식화로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을 다 바쳤다.

여기에는 상사성원들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모든 정성을 쏟아 부었다.

작업장에 찾아온 가족들은 자기들도 선물제작에 조금이나마 성의를 바치도록 하여줄 것을 간청하였다.

상사 성원들과 가족들은 이런 뜨거운 마음을 안고 선물제작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짧은 기간에 동판부식화를 훌륭히 완성하였다.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필리핀 엘랑제상사대표단 성원들은 자기 나라에서 처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처럼 대형동판부식화 ≪백두산밀영≫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필리핀인민들의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깃들어 있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을 백두산밀영과 더불어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하면서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미술작품에 형상된 백두산밀영의 아침노을은 참으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줍니다. 백두산밀영의 아침노을이 있었기에 세계는 반드시 공산주의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 밀영의 아침노을은 20세기 인류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미공조 배격하고 민족공조 이룩하자

우리 민족이 융성번영하려면 통일해야 하겠죠. 통일만 되면 분단으로 인해 겪는 온갖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게 되고 민족의 저력을 통일강성대국건설에 총동원시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비할바 없이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통일에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통일에 사활이 걸려있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공조해야 하는 거죠.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외세와 공조해서는 어느때가서도 통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미공조 배격하고 민족공조 이룩하자≫ 유진명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미국과의 공조를 반대하고 민족공조를 이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수호해야하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북의 군사적 위협을 떠들며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어요. 부시 미대통령은 이북의 군사적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이른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 둘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죠. 무력사용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으로 공개했죠. 더욱이 엄중한 것은 얼마전 부시가 미국은 이북 등을 대상으로 핵공격계획준비를 명령한거죠.

만약 미국이 이북에 대한 핵공격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이북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속에 몰아넣는 도화선으로 되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분열의 비극외에 열핵전쟁의 참화까지 입게 되는 민족적 대참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의 친미반통일세력들은 이러한 미제의 범죄적 책동에 합세해 나서고 있어요. 외국에서 벌어진 일을 확대해 북을 겨냥해 취한 비상경계조치가 바로 그것이죠. 미국으로부터 전투비행기, 미사일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미제와 함께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것도 그 한 사례죠.

이것이 지난 시기 대화있는 대결을 운운하며 대화의 막뒤에서 침략자와 야합해 반북대결전쟁책동을 악랄하게 벌여 모처럼 마련되고 있는 남북대화들을 모두 깨버린 이전 군부독재자들의 범죄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어요. 미국과의 공조는 천추에 용서할 수 없는 반민족적 범죄행위입니다. 민족의 존망을 좌우하는 오늘의 엄중한 정세하에서 민족이 사는 길이 미국과의 공조를 반대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이룩해야 하는 근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고 해도 한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이룩해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전민족적 위업이죠. 우리가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며 전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민족 내부문제인 통일문제에 외세가 간섭해서는 절대로 안돼죠. 반세기가 지나도록 우리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건 바로 외세가 우리 민족문제에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죠. 외세에 의존하면 망국노가 된다는 건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고 있어요.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면 반드시 외세를 배격하고 통일문제의 주인인 우리 민족이 서로 힘을 합치고 단합해야 하죠. 그래야만 우리 민족이 자주통일의 숭고한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의 반통일세력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해서 북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국보법의 유지를 운운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아 나서고 있죠.

주적론은 대화의 상대방인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동족을 소멸해야하는 첫번째 대상으로 규정한 반민족, 반통일론입니다.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이 주적론을 철회하지 않는 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반통일악법인 국보법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국보법은 한마디로 민족자주통일의 암적 존재입니다. 이 악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어 이 땅의 통일애국세력이 무자비하게 탄압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양에서 있었던 8.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 통일을 위해 큰 일을 하고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국보법에 걸려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남북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북과 해외동포들과 함께 축전행사들에도 참가했고 통일구호도 외쳤으며 통일의 글을 남겼는데 이러한 통일애국활동을 죄로 몰아 국보법의 희생물로 만들었습니다. 북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난도질은 바로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로 되는 겁니다. 외세와 공조하면서 반북대결책동에 광분하는 분열주의세력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6.15공동선언이행은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죠.

오늘 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또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우리 민족 모두가 한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이룩할 걸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7천만 겨레는 이회창을 비롯한 이 땅의 반통일세력들의 한미공조책동을 짓부수고 민족공조를 이룩함으로써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대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 더 힘차게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회창역적을 비롯한 반통일사대매국역적들의 한미공조책동을 짓부수고 민족공조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한사람같이 나서야 하겠죠.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7일~28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8일

러시아연방 대통령악단 공연 관람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3월 27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러시아연방 대통령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러시아연방 대통령악단예술인들은 지난해 8월 모스크바 방문시에 공연을 보아주시고 친히 초청해 주셨으며 오늘 또다시 이북을 방문한 자기들의 공연을 관람하러 나오신 **김정일**영도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담아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국제 콩쿨 수상자들을 비롯한 재능있고 이름있는 성악가, 연주가, 지휘자들로 구성된 러시아연방 대통령악단은 관현악, ≪가극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서곡≫, 합창 ≪***≫중에서 ≪**곡≫, 합창 ≪깔린까≫, 여성독창 ≪꾀꼴새≫, 이북 노래들인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사회주의 낙원일세≫, ≪내고향의 정든 집≫을 비롯해 이북 민중에 대한 러시아 민중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담아 성의껏 준비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해 러시아민중의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전통적인 생활풍습, 민족적 정서를 생동하게 잘 보여주었으며 두 나라 수뇌분들의 두터운 친분관계에 기초해 날로 더욱 활짝 꽃펴나는 북러 친선을 격조높이 노래했습니다. 공연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러시아연방 대통령악단의 예술단장이며 수석지휘자인 빠웰 오브샨니꼬브가 이북 방문기간에 이북 민중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염원을 반영해 작곡한 노래 ≪우리 친선 영원하리≫의 합창으로 끝났습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대통령악단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 그들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셨습니다.

민주노총, 조건없는 대화 제의

발전노조파업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27일 정부에 조건없는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원들에 대한 집단해고방침 철회 등을 위한 조건없는 대화를 정부측에 제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발전노조 미복귀노조원 4000여명에 대한 집단해고라는 초강경대응책을 거두고 파업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만일 정부가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대량해고 등의 강경자세를 고수할 경우 다음달 2일 오후 1시로 예정된 총파업을 불가피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화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발전노조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에 경찰병력을 투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이 거세질 예정입니다.

청년학생에 대한 탄압규탄

민가협회원들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회원들, 덕성여대와 국민대 학생들이 지난 24일 국정원앞에서 애국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규탄 및 항의방문과 면회요구투쟁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김혜신씨와 이 단체 후원회인 통일청춘 사무국장 김영호씨와 회원 2명을 연행해 조사하면서 가족들의 면회조차 거부한채 이들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들은 이날 연행자석방, 국정원해체,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관철투쟁을 앞장서 벌이고 있는 범청학련에 대한 탄압에 매달리고 있는 국정원 등 반통일세력에 6.15시대의 대세가 통일애국세력에 있음을 똑똑히 가르쳐줄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청사 진입 시위

청년학생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해 26일 국방부 청사안으로 밀고 들어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국방부를 지키던 경비병들의 저지선을 뚫고 정문안으로 들어가 ≪F-15K≫도입반대, 한미연합훈련반대, 연합토지관리계획재협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성명서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의 의로운 투쟁을 탄압하고 시위자전원을 연행하는 폭거를 감행했으며 기자들의 촬영기까지 파손시키는 횡포를 감행했습니다.

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을 반대하는 한나라당 비난

통일연대의 김모씨가 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 통일특보가 평양방문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의미있는 조치인데도 한나라당이 무턱대고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반민족적, 반통일적 행위라고 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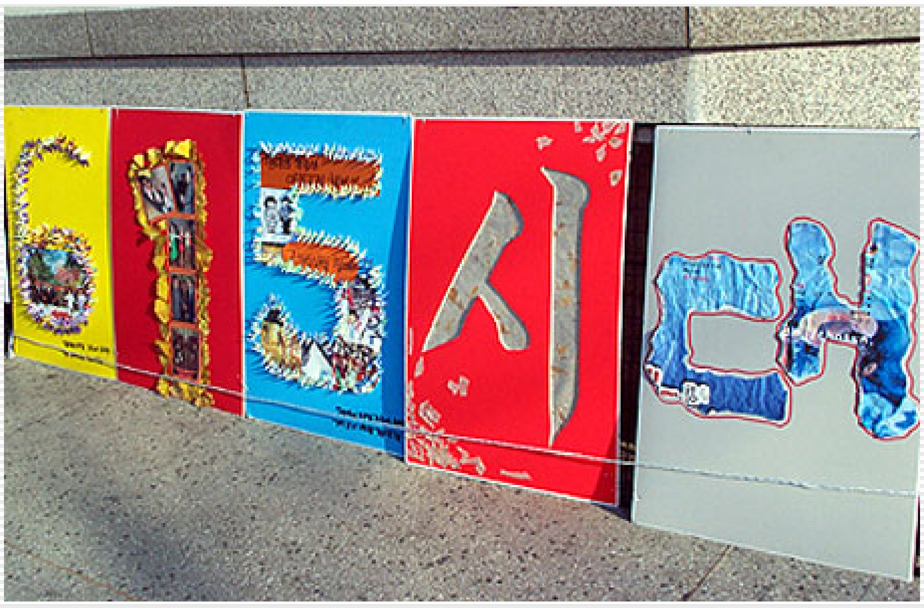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는 미국과 한나라당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에 의해 자포상태에 빠졌다. 특히 부시의 ≪악의 축≫발언과 북에 대한 핵공격계획, 대규모 북침을 위한 핵전쟁훈련으로 한반도에는 핵전쟁위기가 감돌아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를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 남북간의 합의에 따라 특사가 방북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추종해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는 것이다.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당리당략만을 꾀하려는 한나라당은 국민과 전민족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6.15공동선언이행을 파탄시키려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민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역적의 무리가 분명한 것이다.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특사의 방북을 지지하고 있는데 유독 한나라당일당만이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있으니 끓어오르는 민족적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국민은 민족반역아 이회창일당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벌여야 한다.≫

6.15공동선언관철투쟁을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벌이자

**가 한창인 이 땅은 말이죠. 신선한 봄내음의 세상이 화약내에 묻어있다고 봐요. 온 경향을 거대한 전쟁의 마당으로 삼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돌아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그것은 완연한 봄빛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빛에서도 실려오는 통일에 대한 부푼 꿈, 6.15공동선언에 받들려 봄언덕에 만발한 꽃들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끝없이 설레이게 하며 펼쳐졌던 그 감동의 화폭들. 어느 노래에도 있듯이 정녕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은 마치 꿈과 같은 것일까요. 아니죠. 자연도 눈보라를 이겨내고야 환희의 봄계절에 들어서듯이 통일의 봄언덕에 오르자면 7천만 겨레는 분열책동을 단호히 박차야 합니다. 오늘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힘차게 전개되는 반미자주화투쟁도 그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유진명씨 모시고 얘기 나눠드리죠. ≪6.15공동선언관철투쟁을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벌이자≫.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유진명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미국과 민족분열주의세력은 서로 야합하여 북침을 겨냥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7천만 겨레의 지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용납못할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죠.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 민족분열의 원흉임을 더욱 뚜렷이 실증해 주고 있어요. 마땅히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벌여도 그것을 철두철미 반미반부시투쟁과 밀착시켜 진행해 나가야 할거예요. 이에 관해 얘기 나누려고 이렇게 자리 같이 했습니다.
유진명 :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을 왜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벌여야 하는가,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6.15공동선언관철투쟁도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지난날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미국이 우리 민족통일의 최대의 걸림돌이고 암적 존재로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분단으로 점철된 지난 57년의 장구한 역사는 미국이야말로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을 체계적으로 악랄하게 방해해온 원흉임을 실증해주고 있어요. 민족분단의 피눈물나는 날에 는 겨레의 통일지향을 담은 통일방안들이 나와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케하는 나날도 있고 통일열기로 남북 삼천리를 8월의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달구어주던 그런 나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민족의 통일운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분단의 역사가 57년이라는 가슴 아픈 연륜을 새기게 된 건 다 미국때문이죠.
사회자 : 조국통일의 밝은 서광이 비쳐져 온 민족과 삼천리강토가 통일로 끓어번지던 1970년대초만을 돌이켜봐도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로써의 미국의 정체를 생



동히 알 수 있잖아요. 역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발표이후 모처럼 마련됐던 평화통일분위기가 깨지고 우리 겨레가 또다시 분열의 연대들을 지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건 미국의 대북침략정책과 민족분열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죠.
유진명 : 당시 미국은 겉으로는 공동성명을 지지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그 기본정신을 짓밟으려 도발적인 범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했어요. 미국은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 국무부 대변인 담화라는데서 주한미군을 축감할 계획이 없다며 남북사이의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고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닉슨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가하면 미국은 민족분열주의세력을 부추겨 공동성명의 정신을 뒤집어엎고 대결과 분열을 고취하는데로 나가게 했습니다.
사회자 : 마치 오늘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통일진군길을 걸음마다 막아나서는 부시행정부의 반통일행위를 보는듯 싶습니다. 집권하기 바쁘게 대북강경을 떠벌이며 남북간의 화합을 차단하고 전쟁위기를 몰아온 부시행정부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이 다시 단절의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한반도는 행성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세인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도 너무하다고 미국이 이제와서는 북을 두고 대량살상무기전시장이니 ≪악의 축≫이니 뭐니하는 악담을 늘어놓으며 우리 겨레에게 핵참화를 덮씌울 흉계밑에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같은 침략전쟁연습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잖아요.

오늘은 197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21세기입니다. 미국의 민족분열주의행위는 더이상 허용될 수 없어요. 이걸 더욱 똑똑히 새겨주는 측면에서 오늘 우리 청년학생들이 벌이는 투쟁 하나하나가 자못 중요하다 하겠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앞으로 반미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이랄까요, 계속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유진명 :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학생들은 각계 민중들속에 반미자주의식을 더욱 깊게 심어주기 위한 투쟁을 끈기있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가슴을 반미의지로 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면 더많은 사람들을 반미투쟁현장에 목적의식적으로 나서게 하겠는지 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새로운 투쟁작전들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각종의 선전방식들을 능숙하게 활용해 나가야 할 줄압니다. 특히 6.15공동선언이행을 차단시키는 부시행정부의 지난 1년간의 죄악을 놓고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각계층 민중을 반미투쟁에 궐기시키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에 받들려 한반도에 펼쳐졌던 감동의 화폭들을 떠올리면서 거기서 통일조국의 주인은 우리 민중이기에 그 이행을 가로막은 미국의 범죄적 저의를 구체적으로 까발리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심장에 반미항전의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지난 2월 23일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진행된 부시반대투쟁과 관련한 좌담회 참석자들도 일치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성조기소각, 미상공회의소와 보잉사 간판점거, 미국대사관에로의 진출과 같은 투쟁들은 국민들의 반미의지를 높여주고 대중운동을 불러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런 투쟁평가에 기초해서 반미항전을 보다 성대히 전개하는 것이 민중의 반미의지를 높여주고 반미의지를 과시하는데서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명 : 옳습니다. 침략전쟁연습이 끊임없이 감행되어 겨레의 통일지향이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호소, 선언적 투쟁보다도 다수의 대중적인 반미항전을 더욱더 요청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미운동 하나를 벌여도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고 여론전을 강력히 전개해 남북대화가 차단되고 남북내왕이 가로막힌 책임이 미국에 있고 대북강경정책에 있으니 반미항전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강위력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야 합니다.
사회자 : 우리 청년학생들이 선봉에 서서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투쟁을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벌여갈때 미국의 민족분열주의정책은 총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명 : 감사합니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5일~26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28일

김정일총비서 로씨야대통령악단 접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 단장인 모스크바 크레믈리위수사령관 쎄르게이 스뜨리긴중장을 비롯한 악단의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정하철 등과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대통령악단 단장은 **김정일**령도자께 보내온 로씨야련방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대통령의 선물을 정중히 전달해 드리고 악단의 명의로 된 선물을 올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신 다음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손님들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예술인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 로씨야대통령악단의 공연 관람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7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관람자들은 환호를 올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 예술인들은 그이께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김영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 정하철, 김국태, 김기남, 김용순 등과 기타 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또한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 단장인 모스크바 크레믈리위수사령관 쎄르게이 스뜨리긴중장과 조선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안드레이 까를로브를 비롯한 대사관성원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은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련방 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은 관현악 ≪가극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서곡≫, 합창 ≪깔린까≫와 조선노래들인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사회주의락원일세≫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들을 무대에 올렸다.

공연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로씨야련방 대통령악단의 예술단장이며 수석지휘자인 빠웰 오브샤니꼬브가 우리 나라 방문기간에 우리 인민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념원을 반영하여 작곡한 노래 ≪우리 친선 영원하리≫의 합창으로 끝났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 대통령악단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그들에게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신문들, 인도네시대통령의 조선공식친선방문을 환영

28일부 평양의 신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의 초청에 의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의 조선공식친선방문을 환영하여 사설을 실었다.

≪로동신문≫은 조선과 인도네시아사이의 친선관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수카르노대통령사이의 친분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이라고 강조하였다.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의 이번 조선방문은 조선인도네시아친선관계를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 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인민에 대한 고무로 된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오늘 인도네시아인민이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리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새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국가리념인 ≪빤짜실라≫의 정신에 맞게 문명하고 정의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건설구상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통일국가를 보존하는 원칙에서 나라의 분렬을 막고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정부는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와 그 어떤 군사동맹도 체결하지 않고 자기 나라에 대한 외국군사기지설치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인도네시아정부와 인민의 노력에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민주조선≫은 조선인민은 두 나라의 선대수령들에 의하여 마련된 조선, 인도네시아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반테로전쟁≫은 세계제패전략

미국은 지금 전 세계적범위에서 신랭전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기 위한 ≪반테로전쟁≫을 대대적으로 벌리려 하고 있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3월 11일 ≪우리는 반테로전쟁의 제2단계에 들어 섰다≫고 하였으며 이에 앞서 한 ≪년두교서≫라는데서는 조선과 이란, 이라크를 공공연히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세계를 전장으로 보고 있다≫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이며 전면적인 ≪반테로전쟁≫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나 다름 없는것이다.

미국의 ≪반테로전쟁≫은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전횡에 맞서 자주적으로 나가는 주권국가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경쟁대상으로 될수 있는 대국들을 견제하고 통제하며 저들의 지휘봉에 따라 전 세계를 움직이기 위한 철두철미 세계제패전략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로골적인 침략기도는 그 어떤 무기문제나 ≪테로와의 련관성≫문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략적요충지인 조선반도전체를 타고 앉아 이 지역을 정치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야망의 발로이다.

이로부터 부쉬는 집권초기에 벌써 우리를 ≪제1주적≫으로 선포하고 ≪9. 11사건≫이 터지자 때를 만난듯이 ≪반테로전쟁≫의 불길을 세계적범위로 옮겨 가면서 북침공격시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미국이 ≪승리≫를 운운하는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사실상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시험전쟁≫, ≪예비전쟁≫이였다고도 말할수 있다. 미국은 이미 조선반도 ≪유사시≫에 69만여명의 침략무력과 항공모함을 비롯한 각종 함정 160여척, ≪F－18≫전투폭격기 등 1천 600여대의 비행기를 동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부쉬행정부는 최근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을 포함하여 7개 나라를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비상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소형핵무기를 제작할것을 지시하였다.

미국이 이번에 로씨야와 중국을 핵전쟁계획의 대상으로 포함시킨것은 ≪반테로전쟁≫의 공격목표가 대국들에게도 돌려 지고 있다는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반테로전쟁≫이라는것이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침략적대외정책의 산물이라는것을 자인한것이나 같다.

최근 부쉬행정부가 지난 20년래의 최대규모로 되는 3, 790억의 군사비지출을 예견한 2003회계년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미국은 ≪알 카에다≫조직의 ≪박멸≫이라는 구실밑에 ≪반테로전쟁≫을 전 세계적범위에로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반테로전쟁≫은 국제관계의 최고원칙으로 되고 있는 국가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란폭하게 위반하는 부정의의 전쟁이며 국제평화와 안정의 초석인 령토완정의 원칙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사용금지원칙을 혹심하게 유린하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반전반미의 시대적흐름속에서 ≪반테로전쟁≫은 반드시 파산되고 세계전쟁사에 지울수 없는 오명을 남기게 될것이다.

김정일총비서께서 총련 조선대학교와 금강산가극단에 배려금을 보내셨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8일 총련의 조선대학교와 금강산가극단에 거액의 배려금을 보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1, 000명 대합창공연과 관련하여 일본돈으로 1억 3, 242만엔(100만딸라)의 배려금을 보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사회주의조국에서 공연활동을 벌리고 있는 총련 금강산가극단에 일본돈으로 2억 7, 000만엔의 배려금을 보내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재일동포들을 위하여 해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 주시고 이번에 또다시 많은 배려금을 돌려 주신것은 총련의 후대교육사업과 민족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인도네시아대통령 평양 도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의 초청에 의하여 조선을 공식친선방문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각하가 28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대통령과 함께 남편 따우피크 끼에마스, 외무상 누르 하싼 위라유다, 연구 및 과학기술담당 국무상 하따 라쟈싸, 체신 및 공보담당 국무상 샴술 무아리프, 국무비서 겸 내각비서 밤방 께쏘워 등 일행이 왔다. 비행장에는 평양시내 수천명의 군중들이 두 나라 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나와 있었다.

김영남위원장과 외무상 백남순, 무역상 리광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보위원회 위원장이며 문화상인 강능수, 과학원장 리광호와 관계부문 일군들이 손님들을 맞이하였다.

조선주재 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부하리 에펜디와 대사관성원들,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비행장에서 진행되였다. 인도네시아 국가와 조선 애국가가 주악되였다. 김영남위원장과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이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대통령에게 녀성근로자가 꽃다발을 드렸으며 군중들이 대통령과 그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김영남위원장과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대통령이 함께 탄 승용차는 시내로 향하였다.

침략자들은 종국적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현장규탄집회 진행

조선의 근로자들과 학생들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신성한 우리 조국땅에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종국적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원산사범대학,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에서 진행된 현장규탄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이번 전쟁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계획적인 군사적도발이며 우리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 넣기 위한 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단죄규탄하였다.

그들은 침략의 무리들이 감히 우리의 행복한 삶의 요람을 짓밟으려 한다면 조선인민은 인민군대와 함께 원쑤들의 아성을 재더미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합동군사연습에 련이은 새로운 북침훈련

서울의 ≪제1라지오≫에 의하면 남조선군 합동참모본부가 28일부터 4월 3일까지 경기도 려주와 리천, 남한강일대에서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륙군 2개 군단을 비롯하여 공군과 륙군항공작전사령부의 일부 부대도 참가하여 도하훈련을 포함한 각종 훈련을 벌릴것이라고 한다.

미제와 함께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온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련이어 새로운 전쟁연습을 또 감행하기로 함으로써 북침전쟁분위기를 더욱 고취하고 있다.

일본의 반인륜적범죄를 청산할것 요구

조선대표 유엔인권위원회 회의 연설

22일에 있은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 제58차회의 안건 6항(인종차별문제)토의시 조선대표단이 타민족멸시와 침략으로 가득찬 자기의 과거력사를 부정하고 그의 청산을 회피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는 일본의 반인륜적태도와 행위에 주의를 환기시켰다.

조선대표는 연설에서 과거 인종주의, 인종차별행위를 감행한 국가들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국가들과 공동체, 개인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응당한 보상과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지난 20세기에 40여년동안 일본이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이 기간에 강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히 일본은 600여만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징병, 징용으로 끌어 갔으며 100여만명을 학살하고 근 20만명의 녀성들을 일본군의 전투장으로 끌고 다니며 ≪성노예≫생활을 강요하는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

지난 날 세계 인민들에게 재난을 들씌웠던 나라들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오늘 세계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좋은 실례도 있지만 유독 일본만은 자기의 반인륜범죄력사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외곡하고 지어는 미화분식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인종주의와 침략으로 얼룩진 과거를 하루빨리 청산할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아프리카의 더반에서 진행된 유엔반인종주의대회선언과 행동강령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인종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기여해 나갈것이다.

미제는 생사판가리투쟁대상

로동신문

≪로동신문≫ 27일부는 미제는 조선민족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철천지원쑤이며 조선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 재난의 화근이라고 하면서 미제를 조선인민의 생사판가리투쟁대상으로 락인하였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남조선에서 근 70만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사장비들이 동원된 가운데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미국, 남조선의 통합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엄혹한 사태앞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죽음을 각오하고 누가 누구를 하는 판가리결전장에 떨쳐 나섬으로써 조국을 보위하고 통일위업을 이룩할 의지와 신심에 넘쳐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쟁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에 대하여 밝히면서 신문은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고 선군정치를 펴는것은 남조선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미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라고 강조하였다.

제국주의침략자들과 결판을 내야 조선민족은 살게 된다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가 상용무기로든 핵무기로든 우리에게 불질을 하면 우리는 부득불 자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 경우 남조선에 있는 미제침략군과 그 기지들은 우리의 천백배의 보복타격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것이다. 결국 남조선은 미제침략군때문에 전쟁피해를 입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며 그것은 지난 조선전쟁때와는 비교할수도 없는 파국적인것으로 될것이다.

조선민족은 절대로 침략자들의 핵전쟁희생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 미제의 간계에 속아 동족끼리 맞부어 싸움으로써 침략자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것과 같은 자멸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피 맺힌 원쑤, 백년숙적인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이며 침략자들에 의해 흘린 민족의 피값을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 내고야 말것이다.

일본은 최대의 랍치범죄국가

≪로동신문≫ 26일부는 ≪일본은 최대의 랍치범죄국가≫이라는 제목으로 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또다시 우리의 그 무슨 ≪랍치문제≫를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우리의 있지도 않는 ≪랍치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어쩐다 하며 소란을 피우기전에 과거에 우리 인민을 대상으로 감행한 저들의 랍치범죄에 대해 돌이켜 보아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이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것은 남을 위해서보다도 자기자신을 위하여 필요한것입니다.≫

오늘 일본반동들이 지난 날 우리 인민앞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죄할 대신 오히려 있지도 않는 우리의 ≪랍치문제≫를 걸고 들면서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는것은 철면피한 자들만이 할수 있는 망동이다. 일본은 이른바 ≪랍치문제≫에 대하여 말할 자격이 없으며 그런 처지에 있지도 못하다. 사실 랍치문제는 우리가 일본에 따지고 계산하여야 할 문제이다. 랍치는 일본의 타고 난 기질이며 일본은 최대의 랍치범죄국가이다.

력사에 ≪임진왜란≫으로 기록된 임진전쟁기간 우리 나라에 기여 든 왜적들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와 인민들의 재산을 파괴략탈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살해하였으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일본으로 끌고 가 노예로동을 시키거나 다른 나라들에 팔아 넘기는 범죄를 저질렀다.

일본의 자료들에 의하면 당시 왜적들에게 강제련행, 랍치되여간 조선사람의 수는 5만~6만명이상에 달했다고 한다. 한 일본인이 ≪조선서교사≫라는 책에 ≪7년간에 걸치는 조선역(조선전쟁이라는 뜻)은 한 측면에서 보면 사람사냥전쟁이였다.≫고 쓴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임진전쟁기간에 왜적들은 흉악무도하게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랍치하여 성노예로 삼는 짐승 같은 만행도 저질렀다. 기록에 의하면 어느 한 지역에서는 왜적들이 전투에 나간 틈에 왜군들에게 성노예로 끌려 간 100여명의 조선녀성들이 탈출하였다고 한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련행, 랍치범죄는 40여년간의 악랄한 식민지군사강점통치기간에 극도에 달하였다. 일제는 조선강점통치시기 무려 60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랍치, 련행하였으며 근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랍치, 유괴하여 ≪황군≫의 성노리개로 싸움터들에 끌고 다니면서 꽃다운 청춘을 무참히 짓밟고 죽이였다.

일제가 저지른 ≪종군위안부≫범죄는 력사에 류례가 없는 특대형의 랍치범죄, 반인륜적범죄로서 그에 의한 피해는 새 세기에 들어 선 오늘에 와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당시 ≪종군위안부≫강제련행에 가담했던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은 일제의 강제련행, 랍치만행을 낱낱이 폭로해 주고 있다.

≪나는 조선인종군위안부를 강제련행했던 그야말로 노예사냥군이였다. 내가 직접 지휘하여 강제련행한 종군위안부만도 1,000명이 넘는다. 우리는 마을에 도착하면 우선 녀자들을 모두 길가에 끌어 내고 도망치면 목검으로 때려 눕혔다. 총 쥔 순사의 감시속에서 울부짖는 녀자들을 발로 차고 때리고 젖먹이어린애도 떼여 놓고 2~3살짜리 어린애가 울면서 따라 오면 그를 들어 내동댕이치면서 강제로 차에 실었다. 분명히 해둘것은 위안부를 모집한것이 아니라 강제로 체포해 갔다는 점이다.≫

력사자료와 사실들이 보여 주는바와 같이 세계최대의 랍치범죄국가 일본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과거 저들의 엄청난 랍치범죄는 덮어 두고 있지도 않는 우리의 ≪랍치문제≫를 들고 나온것은 어처구니가 없고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은 남의 ≪랍치문제≫를 론하기전에 자기의 극악한 랍치범죄부터 인정하고 청산하는 동시에 제 집안의 랍치문제해결에 정신을 집중하여야 한다.

오늘 일본에서는 랍치범죄가 꼬리를 물고 있어 사람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만도 일본에서는 사람들의 상상을 뛰여 넘는 랍치살해사건들이 련이어 일어 났다. 일본사람들도 일본에서 랍치범죄가 고질적인 악습으로 되고 있으며 그것이 새 세기에 와서도 일본사회에 무서운 ≪정신병≫으로 전염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덮어 두고 그 누구의 ≪랍치문제≫를 걸고 드는 일본반동들의 떠벌임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다. 일본반동들이 제 주제는 볼줄 모르고 괜히 남만 계속 걸고 늘어 지다가는 오히려 국제적인 고립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인민은 일본반동들의 파렴치한 행위에 격분을 금치 못해 하고 있으며 기어이 과거죄악에 대한 피값을 톡톡히 받아 내고야 말 의지에 넘쳐 있다.

공정한 여론들은 일본반동들이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분별없이 놀아 댈것이 아니라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과거범죄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 청산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만이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자주정치로 조국통일운동을 촉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34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8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대단결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지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자주정치로 조국통일운동을 촉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이와같이 지적하셨습니다.

민족자주는 민족의 운명 개척과 조국통일실현에서 근본문제이고 기본 핵입니다. 민족의 흥망성쇠와 조국통일위업의 성패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어떻게 드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지난 6년간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후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의 앞길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준엄한 난국이 가로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분열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비분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우리 겨레의 가슴에 종부리를 들이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슨 변화와 붕괴를 운운하면서 우리의 운명을 농락하려고 들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휘몰아치는 반통일의 역풍 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그런 신념과 의지로 부닥치는 난국을 맞받아 헤쳐나가시면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민족자주정치로 조국통일운동을 어떻게 촉진시키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무엇보다도 존엄높은 민족자주정치로 미국과의 정치군사적 외교적 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조국통일의 기본 장애물입니다. 8.15광복직후 우리나라를 둘로 갈라놓은 것도 미국이고 남조선에 자기의 무력을 주둔시켜놓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도 미국입니다.

지난 6년간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승공통일, 흡수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핵문제를 또다시 꺼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지독스럽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때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정부로 하여금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미국의 행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는 것. 만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영토와 영공, 영해를 0.001미리라도 침범하여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남조선주둔 미군 무력은 말할 것도 없고 적들이 세계 그 어디에 있든 우리의 타격을 피할 자리는 이 행성위에 없다는 것을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자주의 담력과 드센 베짱, 타고난 영도가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세계의 유일초대국으로 오만하게 날뛰는 미제를 총한방 쏘지않고 무릎꿇게 하고 제발로 우리를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조미대화에서도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보의 양보나 후퇴도 없이 그것을 견결히 수호했고 미국이 조국통일문제에 끼어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회담을 미끼로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려던 적들의 이른바 ≪트로이목마 ≫계책을 일거에 짚으셔버린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미국은 고립압살전략으로도, 개혁개방에로 유도하기 위한 유화전술로도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릴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있지도 않는 우리의 지하핵시설 의혹과 미사일문제를 걸고들면서 제2의 조선전쟁계획인 ≪5017작전계획≫을 실행하려고 위협했습니다. 이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군대로 하여금 미국놈들에게 ≪선택의 권리는 우리에게도 있으며 우리의 자의적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 조선이 깨지면 지구도 깨어져나가야 한다≫는 불호령으로 적들의 기를 꺾어놓고 평화를 지켜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존엄높은 민족자주정치로 우리 공화국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서 나라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낸 사회주의 보루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자기의 위상을 뚜렷이 부각시켰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다음으로 민족자주정치로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들의 반공화국,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을 짚으셔 버리셨습니다.

조국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과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됩니다.

분열의 비극을 강요한 외세가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외세에 빌붙어 살아가는 민족반역자, 사대매국노들이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민족반역자들과 사대매국노들도 입으로는 통일에 대하여 떠들지만 이자들이 말하는 통일이란 외세가 없는 민족의 자주권확립으로서의 그런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 외세와 야합해서 동족을 먹으려는 그런 흡수통일, 승공통일입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희망찬 21세기에 들어와서도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하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저들이 스스로 제무덤을 파는 길입니다. 지난 6년간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는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과 전쟁책동이 전래없이 강화된 준엄한 시기였습니다. 특히 김영삼역도는 우리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당하자 그 무슨 북의 조기붕괴를 운운하면서 남북폐쇄정책으로 북남대화의 문을 닫아 매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남조선 인민들의 의로운 통일애국의 길을 가로막아 나섰습니다.

남조선 보수세력들이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벌리면서 감히 우리를 걸고들거나 분별없이 덤벼들때는 그를 짓부시기 위한 정치투쟁을 세계적 판도에서 통이 크게 벌리고 집중 포화를 들씌우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투쟁 방식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남조선 보수세력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 반통일 분열주의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정치선전공세를 제 때에 강하게 들이대고 성명전, 담화전으로 놈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의사에 역행하는 상호주의, 대북포용정책을 강하게 때리고 통일지향적인 북남대화를 마련하기 위한 중앙적인 정책을 연이어 취해서 대화와 통일에 그릇된 태도를 가진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을 계속 피동에 몰아넣고 조국통일운동을 확고히 주도해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민족자주정치로 지난 6년간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공화국은 칠천만겨레에게 희망을 주는 조국통일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또한 천변만화하고 영활무쌍한 자주정치로 조국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반세기가 넘는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세가 끊임없이 조성되는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로 통일투쟁입니다. 이러한 투쟁에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영도자의 위대성과 지략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는 천변만화하고 영활무쌍한 것으로해서 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가장 위력한 정치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에는 적들의 기도를 앞질러 간파하고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유화전술에는 혁명적 원칙으로 대하는 주동적인 대응방략도 있고, 단 한 수로 부닥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영활무쌍한 지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의 약점을 제때에 틀어쥐고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강타해서 제 풀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신묘한 전술도 있습니다.

한 때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대결소동을 벌리면서 그 무슨 제재를 떠벌릴때에도 우리가 적들에게 ≪그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우리의 타격을 피할 자리는 이 행성위에 없다≫는 불호령으로 초강경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라든가 또 미국이 국제원자력기구를 내세워 우리 공화국에 대한 사찰소동을 벌릴때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라는 단 한 수로 세계를 벌둥지 쑤셔놓은 것처럼 만들고 미국을 회담장에 끌어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한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자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변만화하고 영활무쌍한 자주정치의 위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단 한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계속 피동에 빠지게 되자 미국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방향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한다하는 두뇌전을 다 동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적들은 장군님의 지략의 세계를 도무지 알 수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천변만화하고 영활무쌍한 자주정치로 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우리 인민들은 준엄한 난국이 어떻게 타개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희망찬 21세기에 들어와서도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고수하면서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자주정치로 우리 겨레의 통일운동을 승리에로 영도하고 계시기에 내외의 분열주의 세력은 날이갈수록 수세에 빠질 것이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밝은 전망이 열릴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철 F15K 대신 사회복지예산 늘려야

민주노동당 - F-15K 구입예산 당초보다 1조 8천억원 부족

국방부가 지난 27일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를 내정한것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 기종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1조 8천억원이나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잉사측이 지난 2월 19일 가계약에서 제시한 가격은 F-15K 40대에 44억 6천만 달러(5조 8천억원)이나, 국방부측의 FX 사업비는 4조 2백 95억원으로 1조 8천억원이 더 투입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F-15K구입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4조 3천억원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F-15K 구입을 위해 1조 8천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소식에 시민사회단체들의 FX사업 철회 촉구 움직임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FX사업비용 국민 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민주노동당 서울지부는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F-15K기종 내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FX사업에 4조 3천억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노인 · 장애인복지와 청년 실업 등의 국민복지를 위해 그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의 김종철 위원장은 정치발언을 통해 민중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전투기가 아닌 제대로 된 사회복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26만원인데, 고철에 가까운 F-15K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선 1천 3백억원의 비용이 든다≫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어떤 곳에 써야 할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순에 이루어질 2단계 평가에서 FX사업 기종이 F-15K로 확정된 뒤 보잉사와 가격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있는 F-16 전투기 생산라인을 활용하면 F-15K 생산비용을 1억달러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해결방안.

국방부는 또 보잉이 무기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 기업체에서 구입하는 방식의 절충교역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FX사업 철회만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군기지 반환발표는 허구...완전반환아닌 이전일뿐

한편, 김동신 국방장관과 토머스 슈워츠 주한 미군 사령관은 29일 오후 국방부에서 용산을 비롯한 서울 3개 지역의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 28곳의 4천 1백 14만평의 미군기지가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이날 체결된 LPP협정서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한 완전 반환이 아닌 이전으로, 한국은 미군기지 통폐합을 위해 의정부, 오산, 평택 등 시설 7곳과 훈련장 1곳을 포함한 총 8곳에서 154만평을 미군측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 협정과 관련, 미군기지의 완전반환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아닌 전면반환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미군기지는 우리 나라 최고의 혐오시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읽고 미군기지 전면반환과 LPP협정 관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세옥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29

F-X 둘러싼 또다른 전투장

사이버 여론이 세상을 바꾼다

말썽 많았던 차기전투기(F-X) 기종선정이 27일 국방부의 1단계 평가 결과 발표로 미국 보잉사의 F-15K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흔히 사이버(cyber) 세상이라 부르는 인터넷 상에서는 반대 여론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1단계 평가 결과 발표 전부터 F-15K로 선정될 것을 우려해온 네티즌(Netizen, 인터넷 사용자)들은 국방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서면서 서명운동 등 구체적 실천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는 F-X관련 특별 홈페이지(www.cleanfx.net)를 통해 27일 국방부의 외압을 폭로한 조주형 대령의 2차 육성 증언을 공개하고 28일부터 ≪F-15 내정철회! 조작의혹 규명! 사이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참여연대의 사이버 서명운동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YMCA전국연맹,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단체연합,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등 8개의 대표적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8일 하룻만에 3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둘째날인 29일에는 6천명을 넘어섰다. 주제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도 벌써 660여건이 넘었다.

참여연대 오광진 맑은사회만들기본부 간사는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표시하는데 이런 것을 모아내고 특히 사이버 상에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결집, 수렴해서 국민감사 청구와 국정조사권 발동 등 후속적인 대응의 토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대의 포탈사이트인 다음넷(www.daum.net)에서는 ≪FX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기획특집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종 선정을 위한 기준을 묻는 즉석투표에서 3월 26일 하루동안 총 40992명이 참여하는 열기를 보였다. 또한 ≪이슈를 논하자≫라는 게시판에는 총 6만여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다음넷의 임준우 미디어팀장은 ≪사회적 관심사나 네티즌들의 화제거리를 기획특집하는데, 이번 F-X 건은 그 어느 때보다 네티즌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평했다.

이렇듯 이번 F-X사업과 관련해 인터넷 공간과 매체가 단순한 사회 여론의 반영을 넘어 스스로 사회여론을 형성하고 선도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매체의 특성인 쌍방향성과 속보성, 무한지면성 등의 장점을 살려 기존 매체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네티즌들의 반향을 얻고 있다.

김치관기자
통일뉴스 2002/03/29

등록금 인상 저지 교육재정 확충 교육 시장화 저지

전국 교육학생연대 총궐기, 대정부투쟁 선포

3.29 전국 대학생 총궐기

29일 오후 3시부터, 종묘 공원에서는 ≪등록금 인상 저지≫가 적힌 오색찬란한 풍선과 ≪교육재정 확충≫을 적은 샛노란 옷을 입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또 공원 군데군데에는 ≪교육 시장화 저지≫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도 보였다.

전국 대학생들 5000여명은 교육학생연대 깃발 아래 ≪등록금 인상 저지 · 교육재정 확충 · 교육 시장화 저지 3.29 전국 대학생 총궐기≫를 위해 한데 모였다. 교육학생연대는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학협 등이 사상과 정견을 뛰어 넘어 연대, 올해 활발한 교육 투쟁의 큰 공로자인 셈이다.

특히 이날은 지난 96년 같은 날,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확보를 위한 시위≫에 참가 하던 중 숨진 노수석 열사의 기일로, 여전히 같은 구호를 외쳐야 하는 집회라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하는 반면 이후 당찬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 투쟁을 같이 해 왔던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과 교수노조 이용구 부위원장의 연대사가 있었다. 자신을 ≪늙은 교육 노동자≫라고 비유한 이수호 위원장은 ≪발전노조를 비롯한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신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 바람이 교육계를 덮치며 구조조정이나 교수 계약제들이 진행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앞장 서서, 더 이상 대학이 썩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용구 부위원장은 교육부는 부정부패의 온상이라고 빗대며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대학생들의 발언에서도 현 교육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이어졌다.

한총련 임시 의장 김형주(전남대 총학생회장)씨는 ≪학부제나 평가제 등을 통해 이제 대학들도 점점 시장화 되고 있다. 쓸데없는 것에 예산을 써 교육 재정 6%도 아직 확보되지 못했다. 우리는 오늘 투쟁을 통해 반드시 교육 시장화를 철회 시키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연세대에서 진행 중인 대정부 농성단장인 서울 산업대 김경진 부총학생회장은 ≪이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투쟁해 나가야 할 때다. 오늘 투쟁을 시작과 출발로 삼고 앞으로 열심히 농성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육학생연대 상임대표 구정모(서울대 총학생회장)씨는 결의문을 통해 ≪교육을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교육 시장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등록금 정책 등은 반교육적 · 반민중적 정책이다≫라며 ≪△등록금 인상 저지 △교육 시장화 저지 △국립대 특별회계법 민영화 반대 △WTO 교육 개방 저지 등을 주된 과제로 삼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여한 이들은 학교별로 특색있는 옷차림이나 소품을 준비해 관심을 끌었다.

한국 외대는 2002 등록금 투쟁 승리를 위한 실천단 ≪외대를 부탁해≫가 적힌 노란색 옷을 같이 차려 입었고, ≪피도 눈물도 없이≫라고 적힌 파란색 옷을 입은 경희대는 ≪등록금 인상 저지≫등의 내용을 담은 노란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등장했다. 특히 이날에는 경기대를 비롯해 각 대학들이 풍선을 들고 오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한 후 간단한 마무리 집회를 하고 마쳤다.

백영순/김장효숙 기자
유뉴스 2002/03/29

서울대 서울대 총학생회, 29일 새벽 총장실 점거

재학생들, 본부 교육정책 불신임률 96.14%

서울대 총학생회가 재학생들을 상대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본부의 교육정책 불신임안 총투표가 가결된 가운데, 29일 오전 2시께 ≪등록금 인상분 반환, 광역화철회, 이기준 총장 퇴진≫등을 외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점거에 앞서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3시께 ≪서울대 교육정책 성토≫를 위한 비상총회를 열고 ≪요구안≫과 관련 학생부처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부처장이 이를 거부해, 총운영위원회에서 점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인터넷 뉴스 SNUnow에 따르면 25일부터 3일간 실시한 서울대 교육정책 불신임안 총투표는 실투표수 10079표중 불신임 9670표로 재학생들의 불신임률 96.14%다.

총학생회 요구안은 △등록금 인상분 반환과 등록금 책정 협의회의 건설 △현재의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와 전면 이후 전면 재논의 △수강신청변경학점 제한 철폐 △학사경고누적 제명조치/재입학 불허조치 철회 △캠퍼스이용규정안 철회 △순환버스 노선 원상복구외 이기준 총장 퇴진등이다.

박정미기자
유뉴스 2002/03/29

조선대 1.8극장 뒤흔든 ≪교육재정 확충≫외침

56년만에 4419명이 만든 감동드라마

3월 26일 조선대 1.8극장에서 ≪부당한 등록금 인상철회≫와≪법인 개혁≫등 학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총회와 총학생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번 학생총회는 총 인원 수 20,354명에서 뉴질랜드 해외연수생 62명을 제외한 20,292명 중 4,419명이 참석해 학생총회 정족수인 재적인원의 1/10의 2배가 넘는 학생들이 모였다.

조선대 역사상 56년만에 처음 성사된 학생총회. 26일은 총학생회장이 말하다시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도 남을 만한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 조선대 1.8극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교육재정 확충≫의 목소리는 백악골 전역을 흔들었다.

1시부터 각 단과대학별로 집결하면서 학생들이 꼬리를 물고 하나, 둘 자리를 잡더니 순식간에 1.8극장을 꽉 채워 엉덩이를 꼭 붙이면서까지 앉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좁은 자리를 3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했지만 학생들은 오히려 더 즐겁고 흥겹게 학생총회 속으로 한데 어우러져 갔다.

4천명을 훨씬 넘는 학생들. 학생회가 무너진다, 학생 운동의 대중성이 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킬 만큼 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학생들의 뜨거운 요구를 현장에서 맛볼 수 있었다. 정족수 확인을 통해 학생총회가 가능한 재적 인원의 1/10을 넘자, 학생들의 벅찬 감격과 ≪해냈다≫라는 환호성으로 1.8극장은 떠나갈 듯 했다. 부총학생회장의 ≪민족조선 파이팅!≫소리에 맞춰 모든 학생들이 함께 파이팅! 을 외치고 이후 각 단대로 이어지는 파도타기를 통해 대동의 장을 연출, 대학만의 공동체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지 흥겨움의 몸짓이 아니라 2만 학생의 하나됨을 표출하는 성대한 의식이었다.

특히 등록금 투쟁 모습을 풍자한 ≪프로레슬링 경기≫는 학교측과 학생들간의 갈등을 보여줘 분위기는 한층 고조됐다. 이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등록금 문제가 학생들과 한발자국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행사에 참여한 과학교육학부 1학년 김모씨는 ≪과 선배의 권유로 이번 학생총회를 참여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다. 물론 그전에 몰랐던 등록금 문제에 대해 많이 알게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대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각 대표자들이 나와 ≪법인 개혁≫에 관한 성명서와 ≪국가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학생총회 결의문을 발표했을 때 학생들은 엄숙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눈과 귀를 기울였다. 이를 지켜보던 치의학과 3학년 K씨는 ≪학교 당국은 더 이상 법인이 부담해야할 책임까지 학생들에게 떠밀어서는 안된다. 속히 법인을 정상화시켜 학교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인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각 학생회에서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이야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자신있다. 2만의 힘≫이란 기치를 내걸고 우려반 기대반 속에 열린 학생총회. 이전까지 학교의 중요 사안들을 몇몇의 학생회 일꾼들로만 해결하려 했던 모습이 아니라 2만 학생의 힘을 모아 이뤄내려는 주인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1.8극장 속에 타오른≪3 · 26 학생총회≫의 불빛은 올 한해 백악골을 환히 비추는데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조선대 임민희기자
유뉴스 2002/03/28

경북대 4155명이 14시간동안 ≪등록금인하 요구≫

11년만에 ≪학생총회≫ 성공적 개최

20일(수) 경북대 민주광장에 4천 여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모였고 모여든 학생들의 기(氣)에 눌린 학교당국이 두 차례의 협상 안을 제시하는 가 하면 총장이 직접 나와 학생들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그야말로 진풍경이 벌어졌다. 학생수첩 한 귀퉁이 학생회칙으로만 자리 잡고 있던 대학 내 최고 의결회의인 ≪학생총회≫를 성사한 경북대를 현장 취재했다.

경북대학교 측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기성회비 11%인상을 요구했다. 곧바로 이어진 학생들의 인상안 철회로 인해 결국은 교수회에서 제시한 8% 인상안이 결정됐다. 하지만 학생측에서는 기성회비 사용내역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며 인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총학생회에서 제기하는 부당한 기성회비 사용내역은 교수연구보조비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기성회비 사용내역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라는 근거다.

≪기성회비의 올바른 사용, 예결산 심의 · 의결권 보장, 8% 부당 인상한 기성회비 재환불를 요구하며 논의 과정을 다시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광용 총학생회장은 학교측과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학생들의 힘을 믿고 협상을 추진했다고 한다.

기성회비 사용의 부당성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2월을 거치면서 등록금 납부기간 진행한 납부연기투쟁에 3천 여명의 학우들의 참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곧 이어진 등록금문제 설명회 역시 학부모와 함께 6백 여명이 참여했다.

결사전의 마음으로 지난 11일(월) 중앙운영위(단과대 회장단)들의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으로 학생총회 이틀 전에는 전체 94개과 중 73개학과 학생회장단의 지지단식이 진행됐다. 16일간 단식을 진행한 농대회장은 학생총회를 진행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로 실려 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총회를 진행하기로 한 2시, 총학생회 집계 결과 4천이 훨씬 넘는 학생들로 민주광장이 꽉찼다. 4155명, 경북대 11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총회가 성사된 것이다. 정족수 확인으로 학생총회를 선포하는 총학생회장의 발언이 떨어지기 무섭게 모인 학생들의 기에 눌린 대학본부측이 긴급 조정안을 제시해왔다. 강의실 개선, 복지개선, 실질적 환불, 단대 기성회비 조정위원회 건설 등이 적힌 문서였다. 단지 등록금 인상분이 문제가 아니었기에 학생들은 과감없이 안을 부결시키고 ≪총장과의 대화≫를 요청했다. 마지못해 나온 총장은 ≪지방대는 죽어 가는데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등록금 인상은 잘한 일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총장의 발언은 모여든 학생들에게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말았다. 상황파악을 한 총장이 사태수습을 위해 ≪2차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의지 없는 총장의 요구에 학생들은 묵묵부답 할 뿐이었다. 등록금문제를 총장과의 대화로 끝까지 풀겠다는 학생대표자들의 의지는 ≪등록금 재논의≫를 요구하며 총장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 이어졌다.

10시 15분경 대학본부측에서는 꼼짝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불안했던지 면담을 요청해왔다. 총장과 중앙운영위들이 대강당에서 면담을 진행, 대학본부 측은 등록금문제를 백지상태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학생측에서는 여기에 덧붙여 등록금문제에 대한 심의 · 의결권 보장을 제시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논의 끝에 2002년 등록금 책정논의를 학생총회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조건 하에서 전면 재논의하기로 일단락 정리되었다. 새벽4시까지 진행된 총회는 등록금문제를 이후 중운위와 전학대회로 위임하는것에 합의하고 14시간에 걸쳐 진행된 총회는 마무리됐다.

11년 만에 등록금투쟁이라는 사안으로 4115명이 모인 가운데 학생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북대 교정은 늦은 밤까지도 자리를 지키는 학생들로 여느 때 보다 활기가 넘쳤다. 4천 여명이 넘는 총회의결, 그것도 중간에 학교측에서 제시한 두 차례의 중재 안으로 복잡했을 것 같지만 과학생회장들은 일사불란하게 과내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진행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등 그야말로 민주적 의사구현의 모습이 창출되는 시간들이었다.

이날 학생총회를 준비했던 총학생회 한 관계자는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다. 단지 하나의 결정사안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니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학생들을 믿고 학교측의 요구대로 굽히지 않았던 것이 오늘의 이런 힘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학생들의 힘을 다시금 확신했던 기회였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라현윤/이은지 기자
유뉴스 2002/03/21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 (2)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최근논문의 비교연구

차 례

서론
1. 두 논문의 본질적 특징
2. 두 논문의 의의
▶3. 두 논문의 구성체계
▶4.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
  1) ≪이론문제≫의 새로운 견해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5.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과 차이점
6. 두 논문에 대한 이견
7. 새로운 이론쟁점
결론

3. 두 논문의 구성체계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각각 독특한 구성체계를 이루고 있다.

먼저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는 크게 세개의 체계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통일전선론이고 둘째, 민족해방혁명론이며 세째, 혁명영도체계론이다.

≪이론문제≫는 첫째체계인 통일전선론에서 전략적인 통일전선인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의 개념과 함께 기성이론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통일전선이란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단위임을 해명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공동전선, 전술적 공조라는 개념을 통하여 6.15 공동선언 이후 형성된 북남해외의 하층통일전선과 북남정부간의 상층통일전선, 남의 민족민주전선과 이남정부와의 관계 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또한 전술적 실패와 전략적 승리라는 개념으로 6.15 공동선언 이후의 이남정세를 설명하며 지역통일전선을 강화하고 국내 반통일세력들을 제압할 데 대한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둘째체계인 민족해방혁명론에서 전국적 관점의 민족해방혁명론을 정립할 데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성이론의 제한성을 지적하며 북의 혁명역량도 민족해방혁명역량이며 민족해방혁명, 조선혁명은 두 지역혁명의 당면과업을 규정하며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상위의 혁명이라는 점을 해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단위의 반국적 관점의 견해에 대해 기성이론과 대비하며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견해로 반박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세째체계인 혁명영도체계론에서 전국적 관점에서 북의 혁명역량과 남의 혁명역량의 조직적 결합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는 조선노동당과 이남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간의 조직적 결합이라는 혁명영도체계를 수립할 때에만 해결할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이남민족민주전선을 강고하게 건설할 수 있고 이남지역혁명도 승리할 수 있다는 대담한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이론문제≫의 이상의 구성체계는 항일무장투쟁시기를 이론적으로 규정하는 세 체계, 곧 무장투쟁론, 통일전선론, 당건설론의 체계와 유사한 특징이 있다.

≪이론문제≫는 이상의 기본구성체계를 견지하면서 일부단위에 대한 비판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근본적인 정세변화에 맞는 새로운 이론을 제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그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세개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과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과업,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과 동력, 실현경로를 해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략적 과업≫의 첫째체계에서는 민족자주와 민족해방의 개념차이부터 시작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의 반제자주적 성격을 해명하며 이 전략적 과업이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다른 두 전략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며 그 수행과정을 선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반제자주역량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민족민주역량으로 규정하면서 이남 일부단위의 ≪비주체적≫이라는 비판에 대하여 소아병적 사고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현경로는 다른 두 전략적 과업과 달리 1단계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략적 과업≫의 둘째체계에서는 일반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라는 개념차이를 설명하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서 민주강령이 제기하는 민주주의의 성격문제를 해명하고 있다. 또한 민주변혁운동의 중심동력을 기층민중으로, 보조동력을 중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민주주의단계를 거쳐서 민중민주주의단계로 발전한다는 민주변혁의 두 단계 실현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서 진보정당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전략적 과업≫의 세째체계에서는 자주적 평화통일의 연방제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사회주의혁명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전선역량의 조직적 결합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각계각층이 결합된 동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남의 민족민주전선이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타격하는 한편 개혁성과 민족성을 띠는 개혁세력과는 공조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통일전선의 조국통일지향적 성격을 조직적으로 실체화한 것이 바로 단계 연방제에서 결성될 민족통일기구수립이라고 강조하며 두 단계의 연방제를 거쳐서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략적 과업≫의 구성체계는 이와같이 자주, 민주, 통일의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는 체계를 따라가며 ≪민≫지의 질문과 일부단위의 비판에 유념하면서 전국연합의 ≪9월테제≫에 대해 보충하는 형식으로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과업의 성격과 동력, 실현경로를 해명하고 있다.

4.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

1) ≪이론문제≫의 새로운 견해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는 ≪두개전선≫에 이어서 주체의 기성이론이 제출되었던 당시와 현시기의 정세변화에 기초하여 당시에는 해명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략전술문제를 제출하며 이를 새로운 개념, 새로운 이론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첫째, 통일전선에 대한 견해이다. 우선, ≪이론문제≫는 이남민족민주대오가 전략적으로 강화발전시켜야 할 전략적인 통일전선으로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제시하며 그 개념과 차이를 기성이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기성이론과 비교하며 전략적인 통일전선개념으로 규정한 논문은 ≪이론문제≫가 처음일 것이다. 다음, ≪이론문제≫는 민족통일전선의 부분이며 민족통일전선의 지역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술단위로서의 지역통일전선 개념을 제출하며 이를 민족민주전선, 민족통일전선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한편 지역통일전선확대강화라는 개념을 지역통일전선강화만이 아니라 반통일세력타격의 의미까지 내포하며 사용하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전략적 통일전선과 전술적 공동전선, 전술적 공조의 개념을 제시하며 북의 조국통일역량과 남과 해외의 민족민주역량간의 하층민족통일전선을 전략적 통일전선으로, 북의 정부와 남의 정부간의 상층민족통일전선을 전술적 공동전선으로, 남의 민족민주전선과 이남정부와의 관계를 전술적 공조관계로 규정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 전술적 공동전선이라는 개념은 ≪이론문제≫를 통해 최초로 제출된 개념으로서 이 개념을 통해 북남해외의 하층민족통일전선과 북남정부간의 상층민족통일전선의 차이가 분명해지는 한편 전자의 전략적 의의가 선명히 부각되게 되었다. 또한 전술적 공동전선과 전술적 공조라는 개념으로 이남정부에 대한 북측 조국통일역량과 남측 민족민주역량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구별되게 되었다. 이는 6.15공동선언 이후 이남정부에 대한 견해와 관점 차이로 인한 이남 운동대오 내의 분열상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 된다.

다음, ≪이론문제≫는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의 통일전선이 단순한 통일전선차원을 넘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경지에 이른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고 있다. 이는 통일전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견해로서 조선의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령, 당, 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계에서 조선노동당과 우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 간의 통일전선이 어떠한 경지에 도달하였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준다. 이 새로운 견해는 주체주의자와 맑스레닌주의자, 민족민주대오와 민족주의대오 간의 통일전선이 전략적 동맹관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건설단계에서는 새로운 높은 차원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해서 향후 통일전선사업에서 긍정적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둘째, 민족해방혁명에 대한 견해이다. 우선, ≪이론문제≫는 북측 혁명역량도 민족해방혁명역량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론문제≫는 북측 혁명역량은 사회주의혁명역량이고 남측 혁명역량은 민족해방혁명역량이라는 기존의 도식을 깨고 북측 혁명역량도 민족해방혁명역량이라며 새

➡

롭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의 전국적 성격을 해명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으로서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견해,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혁명은 이남지역혁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민족해방혁명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새롭게 제출하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을 사회주의혁명과 민족민주혁명이라는 두 지역혁명의 상위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상위의 혁명이라는 개념을 두 지역혁명의 당면과업을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을 해명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두개전선≫에 이어 민족해방혁명에서 북의 혁명역량이 주도역량이며 남의 혁명역량이 방조역량임을 해명하며 주도와 방조라는 개념은 주체성과 책임성이 아니라 역량관계를 표현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 ≪이론문제≫는 전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민족해방혁명을 조선혁명, 주체혁명이라고 정식화하며 이남에서의 반미자주화운동을 내포한다고 개념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문제≫의 민족해방혁명에 대한 새로운 견해들은 특히 지난 10년간의 조국의 혁명정세, 통일정세를 총화하며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이후 절박하게 제기되는 전국적 관점의 민족해방혁명론을 정립하는데서나 반국적 관점을 극복하는데서나 크게 기여할 중요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세째, 혁명영도체계에 대한 견해이다. ≪이론문제≫는 ≪두개전선≫에서 제출한 ≪북의 반제자주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역량과의 조직적 결합≫이라는 명제를 ≪북의 조선노동당과 남의 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간의 조직적 결합≫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식화하며 이를 이남민족민주전선의 강화발전과 이남 지역혁명승리의 관건적 문제로 제출하고 있다. ≪이론문제≫가 제출한 이 견해는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하는 통일적인 영도체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혁명적 수령관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서나 반국적 관점을 극복하고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는데서나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전격적으로 제출한 대담한 견해라고 할 것이다.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한호석소장이 그간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전술론과 관련하여 제출하였던 논문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호석소장이 ≪전략적 과업≫에서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이후 새롭게 제기된 전략전술적 문제에 대하여 성격, 동력, 실현경로의 정연한 체계 하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견해를 제출하였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첫째, 민족자주는 민족해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민족자주를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이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이라는 전략적 과업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며 그 수행과정을 선도한다는 견해이다. 결과 민족민주전선의 전략적 좌표인 자주, 민주, 통일의 자주라는 개념이 전국적 관점의 총체적 개념으로 재정립되게 되었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둘째, 민족통일전선의 반제자주적 성격과 통일지향적 성격을 구별하며 그에 기초해서 동력, 실현경로에 대하여 새롭게 밝힌 견해이다. 이는 항일시기 민족통일전선이나 다른 나라의 민족통일전선과 달리 분단된 조건에서 오늘 우리가 건설하여야 하는 민족통일전선의 두 가지 성격에 대한 해명으로 된다. 아울러 이 견해는 민족통일전선의 성격을 반제자주적 성격이나 통일지향적 성격 중 어느 하나만으로 보는 편향을 시정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로 된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세째, 전략적 과업들을 수행하는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을 비교설명하면서 반제자주적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반제자주역량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민족민주역량으로 규정하고 통일지향적 민족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북의 조국통일역량과 남의 민족민주역량간의 조직적 결합으로, 보조동력을 남과 해외의 각계각층의 결집된 역량으로 규정하며 민주변혁운동의 통일전선의 중심동력을 노동대중과 농민대중의 기층민중으로, 보조동력을 중간층으로 규정한 견해이다. 이 견해로 인하여 통일전선운동의 중심동력과 보조동력이라는 역량편성문제가 자주, 민주, 통일의 체계 하에 전일적으로 해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적 과업≫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는 네째, 3대 전략적 과업의 실현경로를 설명하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는 전략적 과업은 1단계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전략적 과업은 각각 2단계로 수행된다는 견해이다. ≪전략적 과업≫이 민주주의혁명의 단계를 일반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로 구분하는 견해와 일반민주주의실현단계에 친미예속적 반민주세력을 제압하며 그 근거이자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은 당면해서 실천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과업≫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경로도 민족통일기구수립이라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서 연방통일국가 건설로 나아간다는 견해를 ≪통일정세≫에 이어서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로 인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전략적 과업을 실현하는 경로가 전일적으로 해명되게 되었다.

이상의 ≪전략적 과업≫에서 새롭게 제출한 견해들은 한호석소장이 그간 발표한 논문들에서 부분적으로 제출되거나 시사된 바는 있지만 이상의 경우처럼 체계적으로 정식화하여 공개된 것은 이전 논문과 비교해서나 다른 논문과 비교해서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6호)

조국통일3대헌장

전민족대단합실현의 길에서 (1)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전민족적 통일련방국가의 창립을 위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그분의 발기에 의해 1984년 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련합회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과 남, 미국의 3자회담에 관한 제안을 담은 편지를 미국정부와 서울당국에 보냈다. 또한 다음해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남국회회담을 가지고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을 제안하는 편지를 이남≪국회≫에 보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북남국회회담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얼마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북남국회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의를 내놓았는데 이것은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확고한 립장과 적극적인 노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주는 것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적평화통일을 념원하시는 그분의 발기에 의해 국회회담제안과 함께 북남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훈련중지에 관한 제안, 조선반도에서의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에 관한 제안이 발표되고 15만명의 조선인민군병력을 이북의 평화적건설에 참사시키는 중대조치가 취해졌다.

이 모든 제안과 조치는 우리 나라에서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제안들은 다 상대측에서 진실로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호응해나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실현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좋은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방안들입니다.우리는 미국과 남조선측이 우리의 제안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인내성있게 기다릴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나라의 통일을 위한 대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그분의 이같은 제안들은 미국지배층과 이남≪정권≫의 분렬주의적 립장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가로막히게 되고 그 성사를 이루어내기까지는 간고한 투쟁이 앞에 남아있었다.

그렇기는 했으나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협을 가시고 평화를 보장하며 련방제통일의 길을 열어놓으시려는 **김정일**령도자의 의지는 확고하고 결연한 것이였다. 그분께서는 1987년 1월과 1990년 5월에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과 군축을 위한 제안을 밝히시고 조선인민무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이같은 거듭되는 현실적인 제안과 실천적 조치는 그분의 평화애호적인 지향과 뜨거운 통일의지와 민족애를 보여주는 것이였다.

(계속)